

# ‘친환경 농업 1번지’ 해남군, 유기농 산업 메카 도약

### 180억 투입 종합커뮤니티센터·친환경 전문관·체험농장 등 조성 관광문화자원+유기농으로 부가가치 창출...2028년 완공 목표

전국최대 친환경농업 지역인 해남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통해 유기농산업 메카로 다시 한번 도약한다.

해남군은 농림축산사업부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비 90억원 등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반시설을 포함해 종합커뮤니티센터와 친환경 전문 판매장, 자연치유 카페, 가공판매시설, 어린이 자연치유 놀이터, 유기농 체험농장 등을 조성한다. 202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풍부한 친환경 농업자원을 보유한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도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융복합공간을 만들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관광문화자원과 유기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친환경인증면적(4764ha)을 보유한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 특히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과 가치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친환경 인증 면적 중 유기인증 농산물 비중을 현재의 44% 수준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고 쌀 위주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배추, 고구마, 무화과 등 다양한 품목을 확대 전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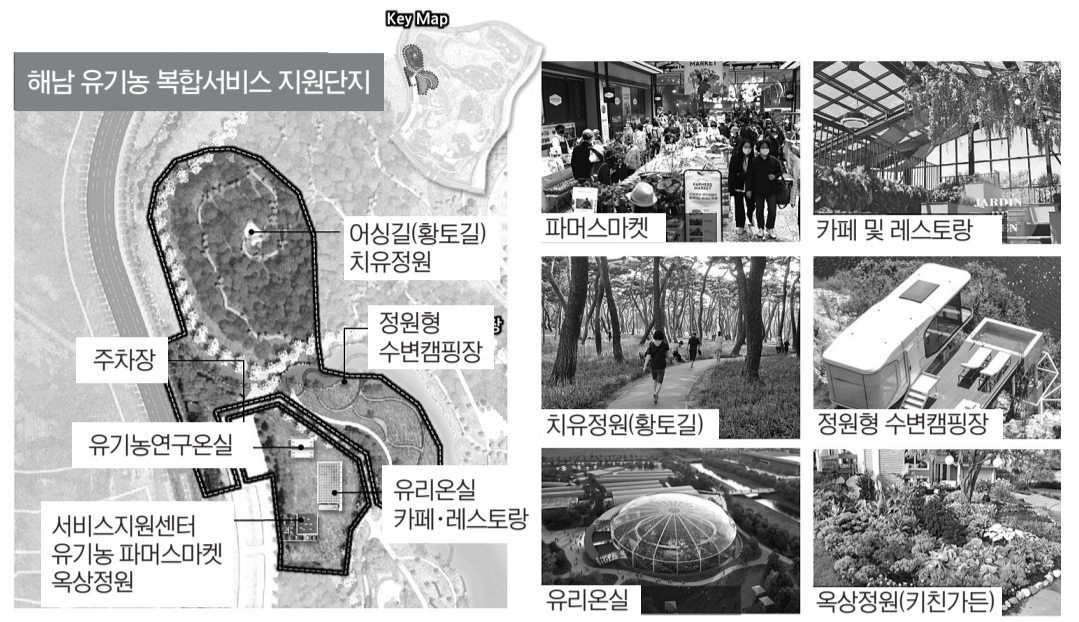
이번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의 조성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유통과 판로 확보는 물론 주 소비층인 대도시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솔라시도 기업

도시내에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은 ‘대한민국 농어업수도 해남’의 비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1번지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전국 최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능성·저탄소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의 조성은 해남 농업의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유기농 복합단지와 연계한 해남군 친환경 생산기반 강화와 농가, 참여기업의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며 “해남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대한민국 미래 유기농산업을 선도할 친환경농업의 융복합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감도.

##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 운송사업자 선정 돌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자 대상 29일 KT 목포빌딩 9층서 설명회

목포시가 공영버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운송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영버스 위탁사업 운영자 모집에 앞서 27일 오후 2시 KT 목포빌딩 9층에서 운송사업 희망자를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운송사업자들에게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영버스 위탁사업 계획, 사업시행 조건, 사업자 선정방안,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 시간을 갖고, 운송사업 희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목포시내버스는 민간사업자가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경영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용역과 시민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목포시내버스.

시내버스를 인수해 직영과 민간위탁(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등 혼합형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공영버스의 사업권역을 4개권역으로 구분해 1개 권역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3개 권역은 입찰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9월 초 공영버스 위탁사업(노선입찰형)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공개선발을 통한 평가위원 모집, 협상대

상자 선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 중단 방지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공영버스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설명회를 통해 경영능력 등이 우수한 운송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신안1004몰’ 김·홍어 등 최대 30% 할인

### 다음달 9일까지 추석맞이 기획전...젓갈 등 180종 판매

신안군이 인터넷 쇼핑몰 ‘신안1004몰(www.shinan1004mall.kr)’에서 오는 9월 9일까지 ‘추석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신안1004몰의 대표 상품인 천사미를 비롯해 김, 홍어, 천일염, 반건조 생선, 젓갈 등 총 180종의 상품을 판매된다.

회원 1인당 20% 할인 쿠폰을 3매씩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6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추석 명절 제품용품 준비를 위해 회원이

구매했던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과 수산물도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가입 시에는 1000원을 적립해 주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1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신안군의 신선하고 건강한 농수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창출

### 융복합센터 시연회...군고구마 페이스트 생산 등 시범운영



김산(가운데) 무안군수가 무안군융복합센터 시연회에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융복합센터가 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시연회에는 김산 군수가 참석해 제품 제작 방법, 이용 장단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무안군융복합센터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구마와 단호박 등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민간자생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을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의 가공라인은 군고구마 페이스트 생산과 개별급속냉동(IQF) 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고구마 껍질 제거와 심 분리, 포장 등을 자동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군고구마 페이스트 생산은 유기농 고구마와 등 외품의 원료를 페이스트 형태로 반가공하여 제과·제빵, 죽(선식), 라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IQF는 농산물을 영하 60도의 초저온 급속냉동으로 제품이 동결되지 않고 개별 냉각할 수 있어 ‘제철 농산물’의 최적 신선도와 최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2년 이상의 유통기한도 확보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 황토에서 자란 고구마는 굵은 과정을 통해 단맛이 더해지고 색깔 또한 깊어진다”며 “융복합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창의적 가치와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중소농가와 함께하는 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신안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제로화 노력

### 군, 70곳 월 1회 현장 행정지도...폭언·감금 등 점검

신안군이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제로화를 위해 탐정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월 1회 이상 현장 위주 행정지도하는 등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지도는 관내 749곳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70곳이다.

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감금 등의 인권침해·장에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 지급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로를 자제하고 얼음물 비치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다.

군은 매월 행정지도를 통해 염전사업장 내에서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범죄 의심 등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 계획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보조금 지원배제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근로자 1대1 전담공무원제가 염전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월 수시로 이뤄지는 현장 위주 점검을 통해 단 1건의 근로자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경로당 ‘공방’ 변신

### 해남군 30개소 공예 제작 인기

해남군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 경로당 문화공방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로당에서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공예품 등을 만드는 ‘문화공방’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는 관내 경로당 30개소에서 440여 명의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제비누나 천연화장품을 비롯해 한지공예, 자개공예, 양말목 공예, 나무 주방용품, LED 플라워 만들기 등 어르신들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내용이다.

프로그램은 3개월간 운영되며, 각 경로당으로 전문강사가 파견돼 어르신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



해남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만든 생활용품을 들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춘 맞춤형 강좌를 진행한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지역 축제나 전시회를 통해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어르신

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문화공방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각종 지역 축제와 플라마켓 등에서 전시, 판매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에까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완도 섬마을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 완도군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어려운 도서 마을의 마을회관·경로당 등 114개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하면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때보다 생존율을 약 3배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도서 마을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층이 많아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륙이 안 된 7개 읍·면 중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섬마을(금일항·금일항·보길·보육·보길·예작 등)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완도군은 의료 취약지 도서 주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응급 헬기 착륙장 13개소와 인계점 23개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로 65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